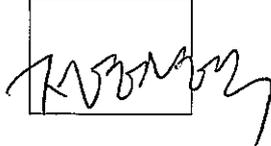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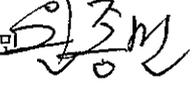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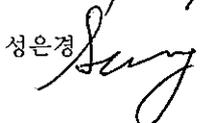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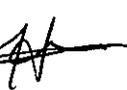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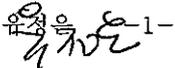


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평의회

2018학년도 제2차 회의록

의장 서명


1. 회의 일시 : 2018. 11. 27(화) 15:00 ~ 15:50
2. 회의 장소 :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601호 회의실
3. 회의 참석자
 - 평 의 원(10명) : 정현혁, 김해동, 나송주, 박용구, 원종민, 김병철, 성은경, 김희진, 이태용, 유정은
 - 간 사(1명) : 엄중섭
 - 학 교(1명) : 최호준 예산담당
 - 불 참(1명) : 한원덕
4. 회의 안건
 - 2018학년도 추가경정예산(안) 자문
5.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
 - 엄중섭 기획팀원이 재적 평의원 과반수 참석으로 대학평의회 운영규정 제10조에 의거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함
 - 정현혁 의장이 2018학년도 대학평의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언함
6. 회의내용
 - 1) 2018학년도 추가경정예산(안) 자문
 - 정현혁 의장이 최호준 기획팀 예산담당에게 안건 설명을 요청함
 - 정현혁 의장의 요청에 따라 최호준 기획팀 예산담당이 '2018학년도 추가경정예산(안) 자료' 를 바탕으로 예산총칙, 주요 수입 및 지출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한 후, 2018학년도 추가경정예산(안) 자문을 진행함

서명 : 정현혁  김해동  나송주  박용구  원종민 
 김병철  성은경  김희진  이태용  유정은  1-

<주요 질의응답 및 자문의견>

- 정현혁 의장 : 의원들에게 추가경정예산(안)에 대한 의견 개진을 요청함
- 나송주 의원 : 2018학년도 추가경정예산(안)은 본 예산 대비 약 43억으로 증액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. 본 예산 대비 30억이 증가한 투자와 기타자산 항목외에 증가되는 항목에 대하여 질의함
- 최호준 예산 담당 : 투자와 기타자산 항목외에 전입 및 기부수입이 약 8.1억 증가하였으며 이중 대부분을 국가장학금이 차지하고 있음
- 박용구 의원 : 투자와 기타자산 항목에 대하여 추가 질의함
- 최호준 예산 담당 : 투자와 기타자산 30억 증가분은 스마트 도서관 건립 관련 내용으로 사용 용도, 지급 방법 등 세부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였으며 아직 지출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음
- 나송주 의원 : 지급 계획이 수립되어 예산에 반영된 것이 아닌지 질의함
- 최호준 예산 담당 : 현재 지급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며, 추후에 지급 계획이 확정될 경우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지 않으면 관련 비용을 지급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한 상황임. 기금 인출은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추후에 구체적인 사용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건축기금 인출 내용을 이사회 상신 예정임
- 박용구 의원 : 국가장학금이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
- 최호준 예산 담당 : 국가장학금은 학교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신청을 하는 사항으로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상치보다 더 많은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증가함
- 원종민 의원 : 추가로 2018학년도 신·편입생 및 재입학생이 전년대비 증가하여 국가장학금이 증가함
- 정현혁 의장 :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가 동시에 본예산 대비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
- 최호준 예산 담당 : 등록금회계 등록금 수입 항목은 본예산과 추경예산 모두 147억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음. 본예산은 예상치이기 때문에 본예산과 비교하기 보다는 2017학년도 결산자료와 비교해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함. 2017학년도 결산 등록금수입 142억에서 추경예산 147억으로 작년대비 등록금 수입은 약 5억정도 증가한 상황임
- 정현혁 의장 : 등록금회계 자금수입합계가 본예산 대비 소폭 증가한 부분이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이 증가해서 발생한 것인지 질의함
- 최호준 예산 담당 : 미사용전기이월자금 항목은 본예산 대비 총 4억정도 증가하였으며, 등록금회계만 보면 본예산 약 29억에서 추경예산 약 32억으로 약 3억정도 증

가하였음.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의 경우 본예산에는 예측치로 편성하며 추경예산에는 2017학년도 결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으로 편성함.

- 정현혁 의장 : 건축기금 30억을 지출한다고 가정했을때 기금 규모에 대하여 질의함
- 최호준 예산 담당 : 당초 우리대학 기금 총액은 약 82억임. 이자부분, 법인 기본금 전출부분 등 6억을 적립하고 건축기금 30억을 인출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2월말 기준으로 약 59억으로 예상할수 있으며, 건축기금 30억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약 89억정도임
- 최호준 예산 담당 : 추가로 기금 적립 세부 내용은 임의연구기금 이자분 39만원, 건축기금적립이 약 2.7억, 특정목적기금적립이 약 3.9억임
- 정현혁 의장 : 현행 법령상 기금 적립이 가능한지 질의함
- 최호준 예산 담당 : 법령상 기금 적립 금지 내용은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하여 적립하는 것을 의미함. 단, 건물(교사)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적립이 가능함. 추가로 추가경정예산(안)의 적립 내용은 비등록금회계로 대부분이 이자 발생분으로 구성되어 있음
- 박용구 의원 : 법정부담전입금에 대하여 질의함
- 최호준 예산 담당 : 법정부담전입금은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본예산 편성시 1억을 반영했었으나, 추경예산 편성 시 법인에서 올해 전출이 없을 것으로 통보를 받아 추경예산에는 본예산 대비 1억원을 삭감하여 편성함
- 박용구 의원 : 임의건축기금 현황에 대하여 질의함
- 최호준 예산 담당 : 연초에 44억이었으며 이자부분, 적립금 고려하여 스마트 도서관 건립 관련 비용을 지출할경우 16억, 지출하지 않을 경우 46억정도로 예상할 수 있음
- 박용구 의원 : 추경예산이 본예산보다 증가한다는건 매우 좋은 현상으로 볼 수 있음
- 나송주 의원 : 등록금 수입은 이제 안정화 된것인지 질의함
- 정현혁 의장 :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화 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것으로 보여짐
- 원종민 의원 : 우리 대학은 한국외대와는 다르게 경기에 매우 민감한 상황임. 사이버대학은 직장인 비중이 높은 편으로 직장인들에게 학업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상황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변동함
- 나송주 의원 :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함에 따라 자기개발 및 학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 현상은 사이버대학에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

- 원종민 의원 : 얼마전 한 언론에서 50~65세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한적이 있음. 설문 대상 3명중 1명은 퇴직 후 새로운 활동을 하기 위해 실행을 하거나 준비중에 있었으며, 취득하고 싶은 자격증으로는 조리사 자격증, 외국어, 공인중개사 순으로 설문 결과를 보였음. 이러한 결과는 외국어 특성화 사이버대학인 우리대학에는 기회가 될 수 있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음
- 정현혁 의장 : 우리대학은 지속적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9년도에 마케팅·광고학과와 산업안전학과를 신설함. 산업안전학과는 정부차원에서 산업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
- 원종민 의원 : 타 사이버대학에도 소방안전학과 등 산업안전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현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안전을 강조하고 있고, 사업장별로 안전관리자 선임이 법제화 되어 있어 관련 인력 수요가 증가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이버대학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임
- 유정은 의원 : 스마트 도서관 건립 사업에 건축기금이 투입되는 충분한 명분이 필요할것으로 보임
- 정현혁 의장 : 스마트 도서관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가 180억 수준이며, 그 중 30억 상당의 세미나실, 연구실 등 우리대학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
- 정현혁 의장 : 차기이월자금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함
- 최호준 예산 담당 : 2017학년도 이전 예산에는 차기이월자금을 0원으로 편성하여 각 사업별로 예산 버퍼가 포함되어 있어 예산 소진율이 낮은 편이었음. 2017학년도 이후에는 법인의 예산 편성 관련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추경예산에는 차기이월자금 24억을 편성함
- 이태용 의원 : 2019학년도 신설학과 교원 충원 관련 내용이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질의함
- 최호준 예산 담당 : 관련 내용은 2019학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임
- 김병철 의원 : 기금이나 차기이월자금은 1년 이상 상품으로 장기 예치가 불가능한지 질의함.
- 최호준 예산 담당 : 운용 기간은 자금 담당 부서에서 재정 안정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며, 임의건축기금은 지출 시점을 예상할수 없기 때문에 3개월 회전주기 상품으로 운영하고 건축기금을 제외한 기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운용중임
- 유정은 의원 : 스마트 도서관 건립 사업에 우리대학 건축기금이 사용된다면 공식화된 문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함
- 김병철 의원 : 30억을 1% 이자율로만 가정해도 연 3,000만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함

- 정현혁 의장 : 스마트 도서관 건립 관련 양교간 공식화된 문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함. 또한, 당초에는 지급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반영이 되어있지 않았으며 학교 정책방향의 수정으로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다고 보일 것 같음
- 김해동 의원 : 추가경정예산(안) 자료의 다양한 수치로 판단해 보았을때 대학이 매우 좋게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음
- 나송주 의원 : 장학금 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을 요청함
- 최호준 예산 담당 : 장학금은 크게 교외장학금과 교내장학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외장학금 약41억, 교내장학금 약 29억으로 구성됨. 교외장학금은 학생들이 직접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며 재단에서는 장학금을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학교에 지급함. 학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급을 하며 이 금액은 그대로 예산의 수입과 지출부분에 반영됨. 교내 장학금은 학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예전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며, 이외에도 대학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혜택 제공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중에 있음
- 정현혁 의장 : 기존에는 교내장학금이 타 사이버대학과 비교하여 매우 적은 수준이었음. 장학금은 입시 및 재학생 만족도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학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함. 이후 직장인장학금, 주부장학금, 희망장학금 등을 새롭게 신설하며, 현재는 21개 사이버대학 중 중상정도 규모의 장학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입시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음
- 김해동 의원 : 평생교육원 운영에 대하여 질의함
- 최호준 예산 담당 : 평생교육원에서는 글로벌 회계 과정을 준비중이며 개설했을 때 약 1.2억의 수입이 발생할것으로 예상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함. 수입은 1.2억이지만 관련 콘텐츠를 내부에서 개발하지 않고 외부 임차 방식으로 진행 예정으로 순수입은 0.2억정도로 예상하고 있음
- 박용구 의원 : 임의건축기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는것인지 질의함
- 최호준 예산 담당 : 임의건축기금은 건축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 건물 매입에도 사용이 가능함.
- 정현혁 의장 :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8학년도 추가경정예산(안) 자문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음

7. 폐회선언

- 정현혁 의장이 폐회를 선언함. 끝.